

전통주, 알고 마시면 인생이 즐겁다



감홍로



진도 홍주

조선시대 함경도 흥원에 흥량이라는 관기가 있었다. 흥량의 마 음을 사로잡은 이는 조선 천제시인 고죽 최경창. 그들의 인연은 과 거에 급제한 최경창이 함경도 북평사로 파견되면서였다. 타향에 서의 외로움과 타고난 문사였던 최경창은 문장과 재색을 갖춘 흥 량과 연정을 나눈다.

그러나 북평사 임기는 2년. 행복했던 순간들이 화살처럼 흘러 가고, 흥량은 입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애절한 마음을 담 은 시가 바로 '뫼버들'이다. "뫼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워 나가든 나인가 도 여기서서" 그러나 얼마 후 최경창이 죽고 만다. 흥량은 자신의 얼굴에 칼을 그어 상처를 내고 재를 바른다. 정절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얼마 후 왜인이 하자 그녀는 최경창의 문집을 몸에 지 니고 도피를 하고, 세월이 흘러 문집은 오늘까지 이른다.

그 흥량의 묘가 있는 지역이 '감홍로' (甘紅露)라는 술이 전해지 는 고장, 파주다. 달고 붉다는 뜻이 사투 시작이다. 무엇보다 조선 의 여류시인 흥량의 연정과 예술혼이 떠오른다. "반짝이는 연지 빛 한잔 술과 마주 앉은 여인의 붉은 웃고름에 동하는 춘심을 누를 풍류객이 빛이나 있었을까?"

술은 알고 마시면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전통주 강 연과 시음, 전시 행사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 이 현주 씨. 그녀가 펴낸 '한국 술, 한국의 맛'은 술 한잔이 가져다주는 다채로운 인생의 맛을 풀어낸다. SNS 상에서 '전통주 읽어주는 여 자'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저자는 국가 주요 행사의 건배주와 다 수의 호텔과 외식업체에 전통주를 추천하는 자문 활동을 했다.

책에는 전통주부터 신생 양조장들이 선보이는 전통주가 주를 이룬다. 그간 저자가 보고 듣고 마시고 느낀 증류주, 약주, 탁주 등 다양한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다. '명인 안동소주', '문배주', '미 르', '대동대일술 십오야', '송화백일주', '이강주', '면천두견주', '한산소곡주' 등 각각의 전통주가 발하는 맛과 향은 그윽하다.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앳은뱅이 술로 '한산소곡주'를 꼽는 다. 아래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서천의 주막거리에



한잔 술, 한국의 맛

이현주 지음

서 마셨던 술이다. 시장기를 채우기 위해 마신 술이 그만 과거보러 갈 생각을 잊고 날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뫼버들 단맛이 있는 양념이 강한 음식 에도 기적지 않는 술이다. 밥과도 잘 어울려 소 박한 나물 밥상에 반주로 곁들이기도 좋다"고 평 한다.

담양의 '대동대일술 십오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정자에 앉아 서걱이는 대일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그 맛에 대한 상 찬이 이채롭다.

대나무통에 술을 넣어 숙성과정을 거쳤기에 깊은 맛이 난다. 쌀 에 섞여 가지 한약재를 넣어 발효했지만 약재의 향과 맛이 튀지 않 는다는 것이다. 바로 발효된 술을 넣어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쳤기 에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이 난다는 얘기가.

전주의 이강주(梨醬酒)는 술에 들어가는 재료를 따서 명명된 이름이다. 배와 생강, 울금, 계피, 꿀도 중요한 재료다. 최남선은 그의 저서 '조선상식문답'에서 "조선에 유명한 널리 알려진 술 세 가지 중 하나로 거론한 술인 이강고(梨)가 바로 이강주의 혈통"이라고 설명한다. 이강고의 '고(膏)는 고아낸다는 뜻으로 약재 등의 재 료를 소주에 넣어 증탕해 만든 술을 일컫는다.



지초로 붉은빛을 내는 진도홍주 제조 시연 장면



문배주



대동대일술

전통주 소개와 아울러 저자는 술 한 잔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 한다. 술이란 마시고 취하는 매개가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 화와 연관돼 있다는 논리다. 거기에는 술을 빚기 위해 들인 시간 과 노동의 과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결부돼 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막걸리는 다 같은 맛이라는 평을 많이 들 었는데 그간의 인식도 많이 바뀐 듯하다. 갓 걸려 신선한 상태로 마시는 술 막걸리는 병 속에서 무궁한 변화를 보이니 오늘 마신 이 막걸리 맛이 내일 같으리라는 법이 없다. 지금 마시는 이 술 한잔 이 우주에서 유일한 맛을 가진 술이니 그 운명과의 조우에 집중 한다면 술맛은 더 귀해진다." (소담출판사·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잉그리 빈테르의 ... 안네 S. 드랑스홀트 지음, 손화수 옮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삶의 중심을 잃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또한 험악어쩌버린 위경망이 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인 잉그리 빈테르의 당장의 불만은 속 에 담아둔다. 그러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은 언제고 끝이 나기 마 려이다.



노르웨이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아프텐블라데'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안네 S. 드랑스홀트가 펴낸 '잉그리 빈테르의 아주 멋진 불 행'은 불안한 현실과 좌충우돌하는 한 여성의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노르웨이 인기 배우인 헨리에테 스텐스트룀은 "지금껏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재미 있고 섬세한 책이다"라고 평할 만큼 책은 한 아줌마의 엉뚱하면서도 슬프고 위태로운 분투기다. 소설 속 주인공 잉그리에게는 빈테르에게는 한 대학에서 일하며 변호사 남 편고 딸 셋을 키우는 여성이다.

그녀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관료적인 대학의 행정, 솔직하지 않 는 동료들, 사소한 문제로 날을 세우는 학부모회의 등은 그녀를 지치게 한다. 여기에 100만 크로네(약 1억5000만원)를 더 주고 산 집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집 문제로 부부관계가 서먹해진 상황에서 방광염, 스트레스성 암, 어지럼증을 동반 하는 낯선까지 그녀를 괴롭힌다. 더욱이 학부 개편을 원치 않는 동료들의 계획에 자신 의 뜻과 관계없이 '약당' 역할까지 맡게 된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일까? 그러다 러시아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이가 생길 듯 머리가 가렵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까? <소소책·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방희생 아마시타 유스케 지음, 변경화 외 옮김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많은 직격탄을 맞을 곳은 지방이다. 현재 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낙후된 지방이 좁다. 그러나 '지방 소멸론'에는 함정이 있다고 보는 이가 있다. 일본 수도대학교 도쿄도 시사회학부 준교수인 아마시타 유스케가 쓴 '지방희생'은 지방을 살 리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느 지역을 가리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없어져 달라'라고 하 거나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던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비용을 쓸 수 없다. 없어지든지 복지의 대상이 되어 달라'고 한다. '선택 과 집중'을 포함한 도시의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객관주의에 의한 '살=주 관'의 부정이다."

저자는 중앙(지방과 상대어)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 하면서 지금까지의 '도시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정 의'는 '선택과 집중', '인구보다 경제와 재정', '객관주의'로 표현된다. 책은 일본 사례 를 중심으로 쓰였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 수치를 생각하면 대동 소이한 점이 적지 않다.

저자의 관점은 간단하다. 지방은 지방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시와 지방은 공존해야 한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 사실 도시화가 진행되 던 시기에 도시 형성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모두 지방에서 나왔다. 그렇게 지방의 자원으로 형성된 도시가 지금은 지방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자는 '공동체의 정의', '지방의 정의', '농촌의 정의'를 제시하며 열린사회의 다양성 을 강조한다. 그 방식의 대안으로 '포용'의 문제를 제안한다. <이상복·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지음

'지금 이대로 좋다'는 지난 8년간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SNS 매체를 통해 약 180만명의 구독자들에게 전해졌던 법륜 스님 의 희망편지 콘텐츠를 한 권의 예세이로 정리한 책이다.



그동안 '인생수업', '지금, 여기, 깨어있기' 등으로 인생의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온 법륜 스님이 자존감, 우울, 성공, 행 복, 사랑, 가족, 직장, 인간관계, 화, 수행 등 삶과 사람에 대한 이야 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 치솟는 집값, 나만 모르 지 않는 것 같은 월급,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에 힘 빠지는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고민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남의 눈을 너 무 의식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닮은 내 모습이 싫어요" 등 각 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또 나를 돌아보고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진짜 내 모습은 어떤지,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 여기, 나',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항상 옳은 것이란 없다' 등 각각의 내 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직장 일에, 가사 일에, 학업에 지쳐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는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책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라"고 권한다.

<정도출판·1만4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